

## 〈자료2〉

… 철도국장관 대옥(大屋)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시안을 통감에게 제출했다. 그는 통감에게 “각하, 호남선 중간역은 대창과 암기가 저렇게 맞대결하고 한치도 양보를 안하니 두 안의 중간지점을 택하는게 최선책일 것 같습니다.” 이에 통감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 중간지점이 이리다. 전주 동산촌도 삼례도 아니고 군산의 대야도 아닌 이리로 낙점된 것이다.

당시 이리는 집 한가구 변변한게 없는 황무지였다. 지금의 동산동 일대의 갈대밭 사이로 10여 가구의 마을이 있었다. 갈대숲 속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속마을 또는 숨리라고 불리던 한적한 동네였다. 이 속리의 한자 뜻을 따서 이리(裡里)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지점의 역을 건설하기가 용이했는지도 모른다. 이리역은 대전 이남의 대역으로서 산업의 대동맥을 잇는 역할을 해왔고, 지금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 이리의 오늘의 번영은 오로지 호남선철도 중간역으로 선택됐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전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지역 다같이 약간의 밭과 언덕 그리고 간간이 끼어있는 논배미의 황무지였던 것이다.

### 2) 이리라는 지명의 유래는?

→

### 3) 일제 강점기 이전 익산의 중심지는 어디였나요?

→

### 4) 익산시는 일제시대 이리역이 호남선 철도의 중간역으로 건설되면서 만들어진 신흥 도시라고 할 수 있다.

## 2. 수탈의 길 전군도로를 아십니까?

### 1) 벚꽃길로 유명한 전군간 도로는 현재도 전주-익산-군산을 잇는 간선도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특히 한반도에 건설된 최초의 신작로(新作路)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군도로 공사의 시작은 1907년 5월 1일 대한제국의 국내부 치도국에서 전주 다가동의 한 초가집에 ‘대한제국 국내부 치도국 전주출장소’라는 간판을 걸면서 부터였다. 당시 공사 책임자는 ‘히다고’라는 일본인 주임 기사였고 도로는 노폭 7m에 길이 46.4km 규모로서 자갈로 도로를 포장하는 전북 최대의 토목 공사였다. … 어쨌든 도로는 1908년 10월 개통되었고 당시에는 이 도로를 새로운 길이라고 하여 신작로라 불렀다.

### 2) 전군도로는 해마다 봄철이 되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정도로 벚꽃이 유명하다. 그러면 이 전군도로의 벚꽃은 언제부터 심어져 있었던 것일까? 벚꽃이 일본의 국화이고 전군도로가 일제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당연히 일제시대에 심어진 것일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지 않다. 본래 벚꽃나무가 심어지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본래 전군도로 개통시에는 길 양편에 도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로 버드나무와 포플러나무를 심어 놓아 1930년대에는 그 풍치가 아름다웠다. 전군도로에 벚꽃나무가 심어진 것은 해방 후인 1975년 갑자기 일본 관동지구의 재일교포가 벚꽃나무 식수 비용으로 700만원을 기증하여 도비 1,100만원 국비 1,300만원 시군비 1,100만원을 합하여 6,435그루의 벚나무를 심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 교과서 읽고 정리하기 (교과서 p48~51)

### 1. 3·1운동이 전개되다(1919)

#### 1) 1910년대 독립운동

- 국내 : 독립의군부, 대한 광복회 등의 \_\_\_\_\_ 조직
- 국외 독립운동 기지 : 교과서 p48 지도에서 다음 명칭을 찾아서 표시하시오.  
경학사, 신흥 학교, 중광단, 서전서숙, 명동학교, 권업회

#### 2) 배경

-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장한 \_\_\_\_\_  
→ 파리강화회의에 대표 파견, 일본 유학생들 \_\_\_\_\_ 발표

#### 3) 전개

- 민족 대표 \_\_\_\_\_인은 태화관에, 학생과 시민들은 \_\_\_\_\_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평화적인 시위 전개
- 일제의 잔인한 시위 진압
- 농촌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 무력 투쟁의 양상, 2달여간 지속  
(일제의 기록에는 집회인수가 2백 2만여 명, 사망자가 7,509명, 구속된 자가 4만 7천여 명)

#### 4) 의의

- 일제의 지배 방식 : \_\_\_\_\_
- 다른 나라 :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반영 운동 등에 영향
- 단체 수립 : \_\_\_\_\_

### 2.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다

#### 1)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각지에서 임시정부 수립
- 연해주 : \_\_\_\_\_, 상하이 : \_\_\_\_\_, 국내 : \_\_\_\_\_  
⇒ 결국 어디로 통합? \_\_\_\_\_

#### 2)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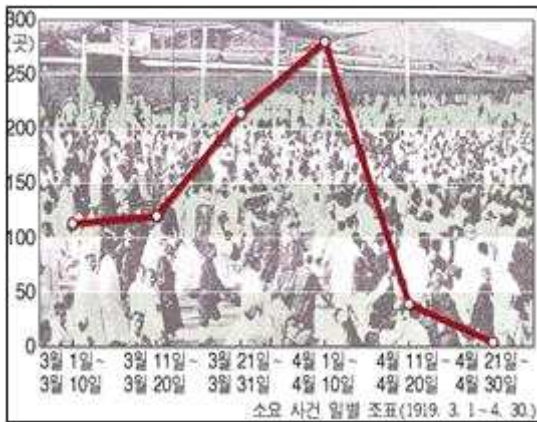
- \_\_\_\_\_, \_\_\_\_\_ : 국내와 연락    - \_\_\_\_\_ 발행    - \_\_\_\_\_신문 발행
-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    - 구미 위원부 설치

#### 3)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침체에 빠짐



## 같이 생각해 보기 (모둠학습)

1. 다음 그래프를 참고해서 볼 때 3·1운동의 절정기는 언제였는가? \_\_\_\_\_



2. 익산에서도 만세 시위가 있었을까?

아래 두 사진은 익산 시내에 있는 3·1운동 관련 기념물들이다. 각각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자.



3. 다음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정리해 보자.

####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있음.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임.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 (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1987.10.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



---



교과서 읽고 정리하기 (교과서 p52~53)

### 1. 문화 통치를 내세워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다.(1920년대)

- 1) 일제가 문화 통치를 실시하게 된 원인은? \_\_\_\_\_
- 2) 문화통치의 내용과 실상

문화통치의 내용	실상
문관 총독 임명 가능	
헌병 경찰을 보통 경찰로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허용,	
	민족 분열, 치안유지법 시행

### 2. 산미 증식 계획(1920~1934)

- 1) 실시 배경 : \_\_\_\_\_
- 2) 쌀을 더 많이 생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교과서에 만남)  
\_\_\_\_\_  
\_\_\_\_\_
- 3) 결과 : 쌀 생산량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증산량은 수탈량 보다 (많았다, 적었다),  
비료 대금, 수리 조합비 등 증산에 필요한 비용은 (농민들이, 조선총독부가) 부담했다.  
따라서 농민들의 삶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교과서 읽고 정리하기 (교과서 p54~57)

### 1. 민족 운동의 분화

- 1) 배경 :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국내로 들어와 민족 운동 분화
- 2) 민족주의 : 실력 양성 운동 중심
- 3) 사회주의 : 농민·노동 운동 중심
  - 사회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이유?

## 2. 실력 양성 운동

- 1) 실력 양성 운동이란? \_\_\_\_\_
- 2) \_\_\_\_\_ : 국산품 애용 운동
- 3) \_\_\_\_\_ : 대학 설립 운동
- 4) 농촌 계몽 운동 : 조선일보의 \_\_\_\_\_, 동아일보의 \_\_\_\_\_

## 3. 농민·노동 운동

- 1) 소작쟁의가 일어난 원인 : \_\_\_\_\_
- 2) 노동쟁의가 일어난 원인 : \_\_\_\_\_
- 3) 대표적인 소작쟁의와 노동쟁의 이름 : \_\_\_\_\_

## 4. 학생운동

- 1) \_\_\_\_\_ : 순종의 인산일 시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연대 → \_\_\_\_\_ 창립에 영향
- 2) \_\_\_\_\_ : 광주에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의 다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제 경찰이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어난 시위 운동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 -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운동  
11월 3일 \_\_\_\_\_로 제정

## 5. 신간회의 창립과 활동

- 1) \_\_\_\_\_ 진영 + \_\_\_\_\_ 진영 = \_\_\_\_\_ (1927)
- 2) 활동 : 전국적 지회, 강연회와 연설회 개최,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지원,  
여성단체인 \_\_\_\_\_ 설립
- 3) 일제의 탄압과 내분으로 해체(1931)



같이 생각해 보기 (모둠학습)

### 1. 교과서 57p “궁금해요!”를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 1) 신간회 설립에 이르게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배경을 정리해 보자.
  - 민족주의 진영 : \_\_\_\_\_
  - 사회주의 진영 : \_\_\_\_\_

- 2) 신간회의 강령 중 ‘기회주의’란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것일까?  
\_\_\_\_\_



## 1.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1920년대)

- 1) \_\_\_\_\_ (1920.6) : 홍범도의 \_\_\_\_\_ 중심
- 2) \_\_\_\_\_ (1920.10) : 김좌진의 \_\_\_\_\_ 중심
- 3) \_\_\_\_\_ (1920) : 간도의 우리 동포 학살
- 4) \_\_\_\_\_ (1921) : 러시아 적군에 의해 무장 해제
- 5) 3부 조직 ( \_\_\_\_\_ , \_\_\_\_\_ , \_\_\_\_\_ ) : 만주 동포 사회를 통치하는 자치 조직

## 2. 의열단

- 1) 1919년 \_\_\_\_\_ 등의 \_\_\_\_\_ 출신들이 조직
- 2) 일제 침략자, 매국노 암살 및 식민 통치 기관 파괴
- 3) 신채호의 \_\_\_\_\_
- 4) 대표적 인물 : \_\_\_\_\_



## 혼자 공부할 때 참고할 자료

### ● 간도참변

일본군의 만행으로 북간도 동포들 1만여 명이 참변을 당했다. 당시 간도에 거주하는 북간도 동포들은 모두 30만 명이었는데, 30명에 1명꼴로 살해를 당한 것이다. 임시정부의 간도 통신원 보고에 따르면 10~11월까지만 해도 3,600여 명이 살해되었고 민가 3,500여 채, 학교 60여 개, 교회 20여 개가 피해를 입었으며, 양곡 6만석이 불태워졌다고 한다. 아래 글은 일제의 만행을 목격한 어느 미국인 선교사의 수기이다.

“1920년 10월 31일. 연기가 자욱하게 낀 찬람과위 마을에 가보았다. 사흘 전 새벽에 무장한 1개 대대가 이 기독교 마을을 포위하고 남자라면 늙은이,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때려죽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붙은 집과 곡식 더미에 던져 버렸다. 이 상황을 울래야 울 수도 없는, 단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처와 어머니들 가운데는 땅을 긁어 손톱이 빠져 버린 사람도 있었다. 3일을 태워도 끝이 없는 잿더미 속에서 한 노인의 시체가 나왔는데 몸에 총알 자국이 4군데나 있고, 몸은 이미 새까맣게 타 버려 목이 새 목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또 반만 탄 19채의 집 주위를 차례로 돌아보니 할머니와 딸들이 잿더미 속에서 타다 남은 살덩어리와 부서진 뼈를 줍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나는 잿더미 속에서 시체를 하나 끌어내어 뽀뽀히 흠어진 사지를 정확하게 맞추어 사진을 찍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사진기를 고정시킬 수 없어 4번이나 다시 찍었다.”

### ● 의열단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잡고 끈임 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제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제의 체도를 개조하여 인류가 인류를 압박하지 않으며 사회가 사회를 수탈하지 않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 신채호, <조선혁명선언> —

의열단이 지목한 암살 대상

- |                  |                 |                  |
|------------------|-----------------|------------------|
| 1) 조선 총독이하 높은 관리 | 2) 일본 군대의 핵심 인물 | 4) 나라 팔아먹은 역적    |
| 5) 친일파 우두머리      | 6) 적의 밀정        | 7) 반민족적 대지주와 자본가 |



교과서 읽고 정리하기 (교과서 p62~63)

### 1. 민족 말살 정책과 인력·물자의 수탈(1930년대~1945년)

- 1) 일제의 대륙 침략 : \_\_\_\_\_ (1931) → \_\_\_\_\_ (1937) → \_\_\_\_\_ (1941)
- 2) '내선일체'의 뜻은? \_\_\_\_\_
- 3) '황국신민'의 뜻은? \_\_\_\_\_
- 4) 일제가 우리 민족의 민족의식을 말살시키려한 이유는?
- 5) 황국신민화 정책 : 황국 신민의 서사 암송, 신사 참배, 조선어·조선사 과목 폐지, 일본식으로 개명

### 2. 병참 기지화 정책과 인력·물자 수탈(1930년대~1945년)

- 1) 만주 사변 이후 일제가 조선에 공업화를 추진한 이유는?
- 2) 중일전쟁 이후 \_\_\_\_\_ (1938) 제정 : 인력과 물자 수탈  
→ 징병제, 징용령, 여자 근로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공출 등



같이 생각해 보기 (모둠학습)

#### 화물차 가는 소리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어랑어랑 어허야  
양곡배급 적어서 콩깍묵만 먹고사누나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 가는 소리에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어랑어랑 어허야  
풀만 썬는 어미 소 배가 고파서 우누나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 가는 소리에  
금불이 쇠불이 밥그릇마저 모조리 굶어 갓고요  
어랑어랑 어허야  
이름 석 자 잃고서 족보만 들고 우누나

문)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한국인에게 강요한 정책을 왼쪽 자료에서 찾아 정리하면?





## 혼자 공부할 때 참고할 자료

### -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2007년 12월 6일, EU의회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청회’에서 네덜란드 피해자 엘렌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어느 날 한 일본 장교가 우리 소녀들을 줄을 세우더군요.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몇몇 소녀를 가리켰어요. 불행하게도 저 역시 그 속에 포함되었지요. 그 이후 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 줬어요. ‘위안부’라는 이름이지요. ‘위안부(Comfort Woman)’,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나에게 붙일 수 있었단 말인가요? 나는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여자가 아니라 노예였어요. 그것도 성 노예였지요.

“동네에서 방송을 했는데, 큰 방앗간 앞으로 모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들 나오라고 하니 부모들이 따라 나왔지. 왜 그러냐 하고. 그래서 나갔는데, 동네 여자들을 나란히 줄 세워 놓고는 쌀가마 무게를 재는 저울에 무게를 달았어. 거기에서 무게가 좀 나가는 실한 여자들은 바로 트럭에 싣더라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나는 덩치가 좋았지. 그래서 나도 그길로 트럭에 실려 간 거야.” - 석순희 할머니(가명)

“병사들은 토요일에는 오후 두 시 혹은 세 시 무렵부터 왔습니다. 일요일 오전 아홉 시부터 오후 일곱 시까지는 특히 많은 병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장교의 인솔 하에 트럭을 타고 왔습니다. 병사들은 사무실을 통과해 방 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현관은 100명이 넘는 병사들로 넘쳐 났습니다. 나는 걸을 수조차 없었고 생리를 하는 도중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40명이나 상대해야만 했고, 씻지도 못했기 때문에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말도 몰랐습니다. 돈도 없고 기차를 타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곳 주변은 병사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병사들이 내 방에 들어오면 나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안소 관리인은 코피가 날 때까지 따귀를 때리고 음식도 주지 않은 채 좁은 방에 감금했습니다.” - 김군자 할머니

“우리는 모두 처녀였습니다. ... 저는 수녀가 되고 싶었습니다. ... 우리는 일본 이름을 써야 했습니다. 그 일본 이름은 모두 꽃 이름이었습니다. ... 그들은 나를 테이블 밑에서 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거기서 나는 발을 차며 저항했지만, 그 남자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는 나를 침실로 끌고 갔으며 침대에서 나는 다시 한 번 반항했습니다. ... 나를 침대로 집어 던지고는 내 옷을 모조리 찢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 몸을 찌어 내렸습니다. 목부터 다리까지 마치 고양이와 쥐를 가지고 놀듯이, 그리고 잔혹하게 강간했습니다.” - 안 루프 오헤른

“군인을 한날에 삼십 명이나 사십 명을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받는가? 밥도 잘 먹지 못하고, 군인들이 끌고 가서 아래가 조그마하니깐 그게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 맘대로 못 하니깐 성숙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자 거기를 칼로 자르는 거야. 싫다고 하니깐 너희 같은 것들이 똥이냐고, 우리 부속품이라든가? 부속품으로 온 것인데 너희들이 똥이냐고 일본말로 하면서 때려.” - 김봉이 할머니

“나는 그때 아직 열두 살이었습니다. 뭐가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웠는데 그는 나를 바닥에 눕혀 짓누른 채 칼로 내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나는 피를 흘렸는데 그는 바지를 벗어 버리고 나를 강간했습니다. 내가 피를 흘리며 우는데도 그는 나를 강간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네무라’라는 군인이 들어왔는데, 가네무라는 나에게 조선 여자라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내 옷을 벗겨 알몸을 만든 후 그 남자도 내 몸, 특히 가슴 부근에 상처를 냈습니다. 내 몸을 보면 온 몸이 상처투성이입니다. - 김영숙 할머니

“공장은 아니고 큰 창고에 칸칸에 가마니때기 치고 문도 없이 담요 두 장씩 석 장씩, 200평 창고에 여자가 한 60명 있더라구. 가는 첫날부터 군인들한테 당하는 기여. 그중에 아기 뱀 여자가 둘이 있더라고. 근데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한 8개월 되니까 둘이 쪽 뽀빠서 나가더라고. 그 여자들 나가더니 트럭에다 태워 가지고 가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기 뱀 사람은 몽땅 그렇게 고른다고 하네. 아기 뱀 사람, 만삭된 사람, 쪽 뽀빠서 한 트럭 싣고 가서는 총살시키고 ...” - 석복순 할머니



“열네 살부터 나는 8년간 있었어. 해방이 되었다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나는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지. 내가 나이가 하도 어려서 군인을 상대하면 자주 기절을 했거든. 그러면 군인들이 마약 주사를 주는 거야. 내 팔뚝 양쪽에 이것이 다 주사 자국이야.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면 아침부터 군인들이 찾아오니까 시작할 때부터 네다섯 대의 주사를 놓는 거야. 그러니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는 마약 중독자가 된 거지. 집이라고 찾아왔는데,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고, 우리 고향은 시골이고, 워낙 여자의 정조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나는 ‘위안부’ 갔다 왔다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그래도 고향 사람들은 내가 마약 중독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모두 내가 ‘위안부’였다는 것을 눈치 챘던 거지. 결국은 나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 - 정서운 할머니



1차 수요시위



500차 수요시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되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등 문제 해결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피해자와 시민들이 연대하는 장소,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공간, 여성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장, 국경을 넘어선 연대의 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요시위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하고, 18 곳의 네트워크협의회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들이 주관 및 참여하여 28년째 이어오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700차 수요시위



1000차 수요시위 및 평화  
비건립



1300차 수요시위



1300차 수요시위 및 나비  
행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폴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태국, 미얀마 등 전 세계 약 23개국 60여 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참여로 이끌어 온 세계 연대의 매개체입니다. 이렇게 뜻 깊은 수요시위를 통해 정의 기억연대는 일본정부에 일곱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하나. 전쟁범죄 인정
- 둘. 진상규명
- 셋. 공식사죄
- 넷. 법적배상
- 다섯. 전범자 처벌
- 여섯. 역사교과서에 기록
- 일곱.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 교과서 읽고 정리하기 (교과서 p64~66)

### 1. 무장 독립 투쟁을 전개하고 광복을 준비하다

- 1) \_\_\_\_\_ (1931) : 김구 중심, \_\_\_\_\_ 의거
- 2) 만주사변(1931)+ → 한·중 연합 작전
  - \_\_\_\_\_ : 지청천
  - \_\_\_\_\_ : 양세봉
  - \_\_\_\_\_ 으로 이동
  - 사회주의 계열(김일성 등) → \_\_\_\_\_ 으로 이동
- 3) 중·일 전쟁(1937) → 중국 본토에서 무장 투쟁
  - \_\_\_\_\_ (1938) : 김원봉
  - \_\_\_\_\_ (1942) : 화베이 지역 사회주의 계열, 중국 공산당과 연합
- 4) 대한민국 임시정부
  - 충칭으로 이동
  - \_\_\_\_\_ (1940) : 지청천 총사령관
  - 일본에 선전포고, 중국 국민당과 협동
  - 미군과 연합하여 \_\_\_\_\_ 계획
- 5) 건국 준비를 위한 강령한 발표한 단체들
  - \_\_\_\_\_ (1941) - 삼균주의
  - \_\_\_\_\_ (1942)
  - \_\_\_\_\_ (1944)
  - 세 단체 건국 강령의 공통점은? \_\_\_\_\_



### 같이 생각해 보기 (모둠학습)

일제 시대에 일본인들은 안중근, 김원봉, 김구 등의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의사’ 혹은 ‘열사’라고 부른다. ‘테러’와 ‘의거’는 다른 것일까? 다른다면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였다고 해도 되는걸까? 모둠원들과 토론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김구는 테러리스트가 (맞다, 아니다). 그 이유는

---



---



---



---